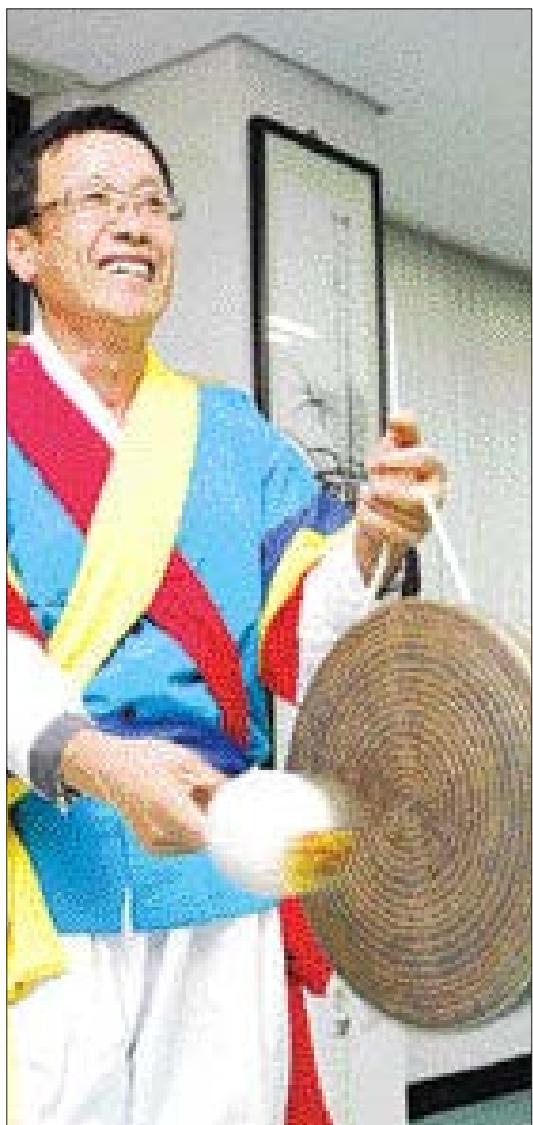




서광주우체국 풍물페 '우리음'

원쪽부터 한기수, 함종필, 추경석, 정의영, 김형삼, 안현숙, 장미선, 조미정, 정민, 오형렬씨

## 우리가락 얼쑤~



“��과리께, 콩 중더, 징...”

��과리의 첫소리를 시작으로, 부드러운 멜로디로 북소리가 가슴을 두드린다. 천둥같은 징소리는 운율을 관통하며 오래도록 마음을 휘감고, 고향집 빛마루에 떨어지는 소나비같은 장구가락이 쏟아질 즈면 거칠어진 숨소리 사이로 ‘얼쑤’ ‘좋다’ 추임새가 절로 터져 나온다.

언제나 우리의 전통 가락은 신명나고 어깨가 절로 들썩거린다. 사물을 두드리며 신과 흥을 찾고, 그 신바람으로 고객에게 사랑과 감동을 전하는 이들이 있다. 흥부의 제비처럼 고마운 편지와 물품을 전해주는 서광주우체국 풍물페 ‘우리음을 찾아서’다.

��과리(쇠)를 잡은 한기수(54·우편물류과 특구팀) 씨는 ‘우리음’의 상쇠다. 평소 차분한 성격이지만 일간 판이 벌어지면 놀이페의 가락을 밟았다 당겼다. 소리를 움켜 쥐었다 풀었다, 신명난 놀이판을 연출해낸다.

오형렬 씨와 장미선·조미정·정민 씨는 북치는 솜씨가 일품이고 김형삼·안현숙씨는 ‘엇박자’의 장구가락을 쓸어낸다.

특히 신미록 씨는 장고의 달인이다. 치는 횟수는 많지 않지만 사울의 가락을 감싸안아 멀리 피지게 하는 징은 추경석(45·우편물류과 집배팀장) 씨가 맡았다. ‘우리음’의 회장이기도 한 추씨는 징의 읊림처럼 회원들에 감싸안고 풍물페를 힘있게 이끌어가고 있다.

‘우리음’은 1993년 4월 1일 결성됐다. 서광주우체국과 생일이 같다. 서광주우체국 개국과 동시에 추 회장의 주도로 둉쳤다. 옛 몇몇 가락을 찾고자 16명의 회원들이 매달 정기적으로 모여 판을 연다. 짧은 연출에도 사울의 타악음과 추임새가 뒤섞여 신명나는 판을 만들어낸다.

초창기엔 남직원들이 주축을 이뤘지만 요즘은 여성원들이 관심을 갖고 많이 참여하고 있다. 연령층이 다양해 ‘시대의 벽’이 느껴질 법도 하지만 큰 문제가 되지 않는다.鹏과리와 징·장구·북 등 사울놀이 악기에서 터져나오는 소리와 한 몸이 되면서 끈끈한 조화를 이룬다.



회원들 신명나게 고객 서비스

### 사물과 한 몸되어 우정업무 ‘척척’

### 하반기엔 양로원 봉사공연할 것

온 연습에도 사울의 타악음과 추임새가 뒤섞여 신명나는 판을 만들어낸다.

초창기엔 남직원들이 주축을 이뤘지만 요즘은 여성원들이 관심을 갖고 많이 참여하고 있다. 연령층이 다양해 ‘시대의 벽’이 느껴질 법도 하지만 큰 문제가 되지 않는다.鹏과리와 징·장구·북 등 사울놀이 악기에서 터져나오는 소리와 한 몸이 되면서 끈끈한 조화를 이룬다.

## 흥을 배달합니다

그 덕에 전남체신청과 서광주우체국의 각종 행사 때마다 공연요청이 들어오고 있다. 전남체신청 ‘상무지구 시대’와 보험회관 건립의 ‘길’을 닦았고, 전남체신청 전 직원 한 마음 체육대회에서 판을 벌여 흥을 돋워 한마음으로 이끌었다.

초등학생 때부터鹏과리로 쥐고 놀았다는 상쇠 한기수 씨는 “풍물페는 행사에서 함께 어울릴 수 있어 무엇보다 좋다”고 말했다. 그는 “서로의 호흡을 느끼며 장단에 맞춰 신나게 장구와鹏과리를 두드리다 보면 긴장 속에 찌든 하루의 피로가 말끔히 가신다”고 사울놀이를 예찬했다.

회원들은 네가지 다른 악기가 어우러져 우리 가락을 만들어내듯 직원 단합에 아주 좋다고 이구동성으로 ‘우리음’을 자랑했다. 또 흥이 자연스럽게 몸에 배다보니 우편배달 등 고객 서비스에도 크게 기여하고 있다.

총무를 맡고 있는 정의영(39·자원과) 씨는 “재작년 보험회관 기공식 때 길놀이 하는 모습에 반해 회장을 조른 끝에 가까스로 가입했다”며 “흥을 배울 수 있고, 행사나 업무 등에서도 적극적으로 참여하게 된 계기가 됐다”고 말했다. 스트레스 해소에 도움이 좋다고 덧붙였다.

‘우리음’은 다음달부터 여직원들을 대상으로 장구교실을 열고 양로원 등 봉사활동도 계획 중이다. 추경석 회장은 “일단은 서로 호흡을 맞춰 소리를 만들어가는 것이 먼저다”며 “나중에 실력이 쌓이면 양로원 등을 방문해 우리 가락을 신명나게 연주하는 봉사를 하고 싶다”고 밝혔다.

/부정육기자 jwpark@kwangju.co.kr

/사진=최현배기자 choi@kwangju.co.kr



## 7·9급 공무원 합격의 해법은 한빛에 있다!

- 고시학원의 대표브랜드 -

# 한빛 고시학원

광주 북구청길 102 234-0234

합격을 가장 많이 시킨 학원만이 공무원합격의 Know-How를 안다!! www.hanbitgosi.co.kr

### 소방직 채대폭학대모

국내유일 시험장과 동일한 소방체력측정기 원비

6개월 만에 합격률 95%로 100% 합격

이은강의 + 문재풀이 + 통증상 무로재증 + 체력측정

개강 6월 1일 학원원모집

### 한빛소방직전문학원

광주 북구청길 102 252-0252

### 수석합격

6월 합격개설강좌

### 학원선택은 실적입니다.

2008년 국가직 388명 합격  
2008년 서울시기본직 209명 합격  
2008년 전남지방직 119명 합격  
2008년 경주지방직 113명 합격  
2008년 경기기본직 12/9명 합격

### 한빛최고의 합격시스템

전국 최강의 강사진, 최고의 시설에서  
당신은 수강받을 권리가 있습니다.

### = 또 하나의 7·9급 합격마직 =

개별 세부기출형태별 학제기제  
7개 28일 7급 국가직 시험대비  
예상 28일 7급, 6급 전자화재  
교재무료제공(한빛강사진출제)

### 종합반/ 단과반

개강 6월 1일

전의경 및 경찰행정학과 특체/남·여 순경 공채

개강 5월 1일(첫 진도 첫 페이지)

# 경찰

전국  
최강의 교수진  
합격 보장! 전문 시스템  
원장 안명섭

### ※ 합격 시스템

6개 월과정 1년과정

2개월 원성 3회 반복 학습

영어 기본이 된 수강생 한함

수강료 교재 15% D/C

주저하지 말고 1년 수강료 98만 원 도전하면 합격의 지름길!

### 합격률 1위 교수진

영어 이방희

영어 기본이 된 수강생 한함

영어 기본력 15년

### 경찰학 오 탄

경찰 영어 70% 합격률

포함하여 쉽게 강의

경찰학력 15년

### 수사 차주운

경찰 경찰학 기본 지침

남부 경찰학원 전임

광주 미기 경찰 학원 전임

### 행법 허문표

FIRST 최강 행법 직강

노회전 한국경찰 전임

광주 미기 학원 전임

= 저마다 합격의 예쁜 꿈들, 無等과 함께하면, “꼭”이뤄집니다!! =

# 7·9級 공무원

전국 최고의 과목

### 7·9급 주부반모집 학제기제

개별 세부기출형태별 학제기제

7개 28일 7급 국가직 시험대비

예상 28일 7급, 6급 전자화재

### 개강

5월 15일(주·야 합동 모집)

(현재상당인수증)

### 본 학원 강의 과목

국어, 영어, 한국사, 행정법, 행정학, 교육학

세법, 회계학, 협사법, 민사법, 헌법, 경제학

교정학, 복지학, 소방학, 법, 광충보건학, 상식, 기타

= 주간반 2개월, 야간반 3개월 완성 =

경찰 메가경찰학원  
전남여고 후문 학원가

www.gmega.co.kr  
☎ 226-5050

무동고시학원  
www.mdgosi.co.kr  
☎ 222-4560